

이긴자 일대기 [19]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진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로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늘의 3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 중위는 군장교의 몸으로 영모님의 육중 발령을 받아 온양 전도관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온양 전도관은 날로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예배를 인도하면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구슬 같은 눈물을 펄펄 흘렸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어떤 슬픈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곱째 천사와 더불어 예배 보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연결되고 향취가 진동하는고로 마음이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전도관 여기저기에서 일곱째 천사를 초청하여 부흥집회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시간에 전원이 이슬이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향취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생수연결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멈추었으니 밖에 나가보라

일곱째 천사가 온양제단에 있었을 때 일주일간 부흥집회기간을 정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계속 비가 와서 집회에 지장이 많으므로 단상에서 "엘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갑랍나무

가지가 기도하오니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비가 멈추었으니 밖에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쏟아졌던 비 때문에 계속 장문을 타고 빗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장로들이 비웃으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단상에서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 온양만 비가 오지 않고 둔포, 성환, 천안, 예산 등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비가 오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제야 교인들이 모두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향취가 진동하고 이슬 같은 은혜가 쏟아지니 온양의 지방 유지들이 많이 전도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냄새로 죄짓는 것을 지적

또 하나님 신이 함께하는 일곱째 천사는 이미 이삼십 대에 음란죄를 짓고 오는 사람에게는 뱀 냄새가 나고, 도둑질을 하고 오는 사람 몸에서는 구린내가 나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온양제단 교인 중에 음란죄를 짓는 청년이 있었는데, 일곱째 천사 조 중위 전도사는 그 청년교인에게 "너, 음란죄를 지었구나!"하고 지적하니 그 청년

이 완강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몸에 뱀 냄새가 나, 나를 속이려고 들지 마. 그리고 누구와 음란죄를 졌는지까지 내가 말해볼까?"라고 하니, 그제야 그 청년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하며 얼굴이 빨개지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타일러 주었는데 속스러워서인지 그 후 제단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에게서 구린내가 나므로 "너, 왜 도둑질을 했어?"라고 하니 "안했어요"하므로 "잔소리 하지 말고 어디 숨겨 놔?" 하며 호통을 치니 "저기 숨겨놔요" 하며 바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 또한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하면서 무서워서 제단 출석을 하지 않기에 다음부터는 지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라보이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그 후부터는 냄새가 나고 일체 지적을 할 수가 없었으며 알면서도 모르는 것같이 지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 조 중위 전도사에게는 이미 오래 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제주도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훈련병 중에서 돈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 중대원 전원이 단체기함을 장시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오프드려 있어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아 모두들 고통이 심하므로 일곱째 천사가 벌떡 일어나 가셔서 "중대장님, 제가 도둑을 잡을 테니 기함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봤어?"
"안 봤습니다. 그러나 300명 훈련병

전원을 제 앞으로 1미터 간격으로 한 명씩 제 눈을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제가 잡아내겠습니다."라고 하니, 중대장이 "너, 못 잡으면 죽어." 하며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 앞으로 150명쯤 지나가는데 구린내가 나는 자가 있어 "중대장님, 바로 이 놈입니다." 하니, 그 훈련병이 일곱째 천사의 목살을 잡고 아니라고 우기며 "이 자식이 괜히 생사람 잡는다."고 펄펄 뛰며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뱀새난다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내가 봤어! 막사에 너 자리 밑에 숨겼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사람을 시켜 도둑질한 훈련병의 자리 밑에서 돈을 찾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훈련병들 사이에서 일곱째 천사의 별명이 '조 귀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는 벌써 20대에 뱀새로 음란죄인, 도둑질한 죄인들을 구별해 내었던 것입니다.

단상에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에 그 이후부터는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할 수 없었다

일곱째 천사가 온양전도관에서 시무했을 때 제단에 있지 않고, 제단과 좀 떨어진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가는데 하루는 지름길을 철조망으로 막아 놓아 돌아서 가다가 늦게 도착하여 단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방하는 자 좋지 않다."는 말이 그 자신도 모르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철조망친 집의 열두 살짜리 외아들이 벽 갑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1950년대 초반 제주도 모슬포 신병훈련소 <https://www.khan.co.kr/article/200612181828541>

이 죽은 아이의 부친은 평소 전도관이라면 괜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급기야는 그 길에 자기 농토안에 있는 땅이라는 핑계로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 집안의 기막힌 사정과 애벌써 20대에 뱀새로 음란죄인, 도둑질한 죄인들을 구별해 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동네 유명한 무당을 불러와서 지리견이(푸닥거리)를 하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전도관 전에 있는 땅이라는 핑계로 길을 막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니, 아이의 부친이 "며칠 전에 전도사가 와서 죽은 아이를 내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거절했는데, 지금이라도 전도사에게 부탁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단에 계속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피가 맑아야 늙지 않는다 Clear Blood Keeps You Young

어린이의 피는 선홍색으로 밝은 빛을 띄고 있다.
A child's blood is bright and vivid, glowing with a clear crimson color.

그러나 노인의 피는 혼탁하고 어둡다.
In contrast, an elderly person's blood tends to be murky and dark.

그것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욕심을 부리고 근심 걱정을 하는 횡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계속해서 피가 혼탁해진 까닭이다.
This is because as we age, we become more entangled in desires and worries, which steadily clouds the purity of our blood.

근심 걱정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욕심이란 곧 '나라는 존재의 식'이 일으켜 낸 분비물과도 같은 것이다.
Worry stems from desire, and desire itself is like a secretion produced by the ego—the awareness of "I".

따라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자아의식이 조종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대체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다.
As we grow older, the ego governs us more often, which is why aging tends to accelerate with age.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수명을 다하면 죽는다.
The cells in our body die once they have fulfilled their lifespan.

죽은 세포는 곧 피에 의해 재조성 되는데, 썩은 피로써는 새 세포를 조성하지 못한다.
Dead cells are regenerated through the blood, but decayed or impure blood cannot properly create new ones.

죽 썩은 피가 40-50% 늘어 갈수록 새로 조성되는 세포는 40-50% 감소하게 된다.
That is, as impure blood increases by 40-50%, the formation of new cells decreases by the same proportion.

따라서 근육, 뼈, 신경조직과 오장 육부가 모두 다 충실하게 재조성 되지 못하게 되어 병의 저항력이 약해진다.
Consequently, muscles, bones, nerves, and internal organs cannot regenerate properly, weakening the body's resistance to disease.

그러므로 '피가 맑아야 오래 산다'라든가 '마음이 깨끗해야 오래 산다'고 하는 속설이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다.
Thus, the old sayings "Clear blood leads to long life" or "A pure heart brings longevity" are actually based on sound scientific reasoning.*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울 거야

무당이 대답하기를, "그때 전도사가 아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주었더라면 틀림없이 살아날 수 있었지만 이제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체가 너무 썩은 상태인지라 전도사를 불러와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본 일곱째 천사는 그 이후부터는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이 씨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여자의 악담에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무 생각도 없이 '벌어먹을 자식'이나 '말할 자식' 등의 욕을 하는데 그 말이 씨가 되어 정말로 자식들이 커서 이집 저집으로 기웃거리는 동냥치가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해도 재수에 욕이 붙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이양 욕을 하려면 '잘 될 놈의 자식'이라든지 '부자 될 놈의 자식'이라고 고쳐서 말하는 버릇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일곱째 천사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등등 '죽겠네'로 끝맺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씨가 되어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영생하겠네' 또는 '살겠네'로 고쳐서 말하고 '죽겠네' 소리를 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망권세를 권미귀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전도관 역사에 전도사가 예배 인도할 때 이슬성신이 내린 것도 전무한 일이지만 전도사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순식간에 부흥된 일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곱째 천사가 온양제단에서 시무하는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를 멈추고 뱀새로 죄를 지적하는 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곱째 천사가 예배를 인도하면 이슬은혜가 너무나 강하게 내리기에 참석한 교인들 대부분이 뽀얗게 내리는 이슬을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육군 중위였던 일곱째 천사가 영모님의 육중발령을 받고 전도사 신분으로 온양제단에 왔을 때 그곳에 나오는 교인이 세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제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매일 새벽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교인이 다 병든 환자였는데, 은혜를 받고 모두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자 신앙의 불이 붙어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 오니까 여섯 명이 되고 여섯 명이 또 한 사람씩 전도해 오니까 열두 명이 되고 이렇게 계속 하여 석 달 만에 삼백 명이 모이는 제단으로 부흥된 것입니다.

전도된 삼백 명의 식구들도 거의 다 환자였는데 제단에 나와 병이 낫게 되니, 그들이 불이 붙어 예배에 임하여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을 불러도 그 손바닥 소리가 온양 시내 일대를 울릴 정도

로 크게 치고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관 역사에 이렇게 순식간에 부흥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또한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할 때에 이슬성신이 내린 것도 그 어느 다른 제단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하게 온양제단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영모님이 석방될 때에도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전도관 전도사 이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대표로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단에 그만서, 계속 단에 서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긴자가 될 수 없어!

또 일곱째 천사 전도사의 방에는 늘 향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온양제단 식구들이 떠나 할 것 없이 전도사 방에 들어왔다가 기러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애걸복걸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서 방 안에서 나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왜 안 나가십니까? 밥하러 가서야지."라고 하면, "밥하러 가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이 방안에 들어와 있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향취냄새가 진동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집에 가겠습니까?"하고 있으면 일곱째 천사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한참 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한밤중에 들어와 보면 다 가고 없는 것입니다.

온양제단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역사를 하게 되니, 하루는 영모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부르셔서 "이제 단에 그만서, 계속 단에 서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긴자가 될 수 없어. 조 중위는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울 거야."라고 하시기에,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네, 알겠습니다."하고 온양으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숨긴 채 단지 온양제단에서 그만 시무하라는 영모님의 뜻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 교인이 들고 일어나서 장로를 중심으로 곳곳으로 다니며 조 전도사가 온양제단을 떠나면 온양제단은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영모님 앞까지 가서 조 전도사를 떠나보내면 온양제단은 문을 닫게 되니 조 전도사를 온양제단에 그냥 있게 해 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니 영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모님의 눈치가 다르고 또한 하나님의 숨은 사정을 알기에, 일곱째 천사는 교인들 한 사람씩 지혜롭게 설득하여 마침내 온양제단을 떠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온양제단 삼백 명의 식구들이 다 기차역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아쉬운 석별의 전송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학생이 달리는 열차에 몸을 날려 자살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일동중 학교를 떠날 때도 있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없는 세상은 살기 싫다면서 죽음을 택한 학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일체 드러내지 않고 평신도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